

신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한 화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나는 세상이 곧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진 신나는 세상, 한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http://www.hanwha.co.kr> 더욱 상세한 그룹소개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화 그룹

會長 金昇淵

대문목재(주)

미송·합판·건축재·가구재

代表理事 **金都淵**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78

전화 : (032) 577-7733, 578-7878, 573-1877

FAX : (032) 579-1870

金科元神經外科醫院

院長 醫學博士 **金科元**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進士公 15代孫
- 全南光州地域 宗親會長
- 光州廣域市 醫師會名譽會長
- 光州全南 佛教信徒會長
- 光州博物館會 會長

病院 : 光州廣域市 東區 錦南路5街 101

電話 : (062) 228-2471

自宅 : (062) 2223-7200

대성상사

(427호)

社長 **金深淵**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

職場 : 744-4890, 766-3648

自宅 : 766-5233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金喆俊**



- 中央宗親會 副會長
- 持平公派宗會 會長
-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 法務部更生保護會 名譽會長

서울특별시 永登浦區 永登浦洞4街 153-1

電話 : 678-8225, 678-0848

고양낙우회

會長 **金大淵**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判事公 16代孫
- 牧使公派宗會 會長

경기도 일산시 성석동 765

電話 : (0344) 62-6049

(0344) 977-0715

(0344) 975-3622(自)

광일공업(주)

대표 **김광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화 : (0331) 34-3171~2

FAX : (0331) 35-4518

聞慶市議會議長 **金大永**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翊贊公 16代孫
- 聞慶市議會議長
- 聞慶宗親會 會長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電話 事務室 : (0581) 71-5588

自宅 : (0581) 71-5500

(주)근하공영
(주)홍인운수

대표 **김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 (02) 972-2331

☀ 순·김 뿌리의 캠페인 ☀

경제 국난시대에 즈음하여
신토불이의 정신으로 우리 종친들의 사업을 돕고자 결집된 힘을 모으자.

“우리 종보에 게재된 광고란의 종친들의 사업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는”

[예] 1) 차량소유 종친들은 한 방울의 기름도 한화에너지를 이용하자.

2) 자라나는 우리 종친 자녀들에게 빙그레 우유와 제품을 애용하자.

위와 같은 거족적인 우리 문중의 결집된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경제국난에 대처한다.

清溪電業株式會社

電氣工事·消防設備工事·受配電盤·設計製作
(動資部承認 第1種電氣工事業 193號)

代表理事 **金 文 載**



- 中央宗親會 副會長
- 典書公派 寧州公 19代孫

서울特別市 中區 水標洞 11-7(清溪빌딩)
 本社電話 : 265-6558, 275-0732~3
 工場電話 : 877-6227
 自宅電話 : 877-6244

鳥嶺産業株式會社

社長 昭俺 **金 喆 熙**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 忍百堂 14代孫
- 서울宗親會會長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56-8
 電話 : (02) 572-5059, 573-5968
 自宅 : 서울特別市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A 77-803
 電話 : (02) 543-5439

(株) 東南特殊運輸 (株) 東南商運

代表理事 **金 東 洙**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監察公 17代孫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 (0661) 755-0124~5
 FAX : (0661) 755-0188
 자택 : (0661) 52-8441
 호출 : 012-610-8913
 휴대폰 : 011-622-3125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稅務士 **金 東 吾**



- 中央宗親會 副會長
- 襄景公派 判事公 17代孫
- 聞慶宗親會 會長 歷任

事務所 : 聞慶市 店村洞 244-8
 電話 : 事務所 (0581) 555-4887~8, 2740
 自宅 (0581) 555-4031

내외합동법률사무소

辯護士 **金 亨 民**



- 中央宗親會 理事
- 순금회 總務會務 委員
- 節齋公 18代孫
- 辯護士

事務所 : 瑞草區 瑞草洞 1678-2
 동아빌라트 2동 403호
 電話 : (02) 3472-7755
 FAX : (02) 3472-4561

한서화물자동차(주)

호남 정기화물
한서택배제주특송



會長 **金 相 容**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 397-13
 전화 : (0652) 211-1271~2
 (02) 209-6114
 (02) 571-5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6
 한국화물트럭터미널내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 南隱公 16代孫

이 참소 사건의 사실 여부를 은밀히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박호문의 개인감정에 의한 무고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아예 탄핵을 포기하게 된다.

사헌부에서 김종서 탄핵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박호문은 세종에게 참소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다시 그 내용의 대강을 김종서에게 귀뜸하면서 세종의 문책에 할 수 없이 대답하였노라고 선수를 쳐서 왕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책략을 쓴다.

이것이 계략인줄 알지 못하는 김종서는 어이가 없어 세종 22년(1440) 1월 17일에 사헌부에서 탄핵하려 했었다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해명하면서 능력도 부치고 병도 깊어 이상 더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 사직을 하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혼자만 알고 못들은 척하려 했던 세종은 놀라서 그 사실 내막을 도승지 김돈에게 물어본다.

김돈은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사헌부에서 탄핵하려 했던 내용이 십여가지인데 첫째가 김종서의 사랑하는 기생에게 여진족이 뇌물을 바쳐야만 그들을 서울로 올려보냈다는 것이고, 둘째가 논밭을 나눠주는데 김종서의 마음대로 하였다는 것이고, 셋째가 백일상을 마치고 진으로 돌아갈 때 안변에서 기생을 데리고 경성으로 간 것이라는 등의 일이라고 아뢰며 그것이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김종서를 옹호한다.

이 말을 듣고 세종도 단호하게 잘라 말한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종서의 공이 크니 그를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전지하기를

『경은 움직일 마음을 갖지 마라. 만일 병이 있다면 근신해서 조섭하고 다시 더 심력을 다하여 그 직무에 충실하고 삼가도록 하라.』

세종은 일단 이렇게 김종서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여 그를 안심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참소내용을 그대로 덮어둔다면 오히려 김종서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것이고 그 입장도 뗏뗏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아예 이 기회에 그 참소하던 내용을 공표하고 김종서를 내직으로 불러올릴 생각을 한다. 그래서 1월 19일에 도승지 김돈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한다.

『김종서의 공은 작다고 할 수 없다. 새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으고 여러 종족들을 불러 행복받아서 동북한 지방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조용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세운 큰 공이다.』

박호문은 본래 경박한 사람이다. 예전에 겸사복(兼司僕)이 되었을 때 최윤덕과 환관 인수(印守)가 다투어 그 용맹을 칭찬하였고 과거장에 사신을 보낼만한 인물을 뽑는데도 대신이 역시 호문을 추천하였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언어동작이 날렵하고 영리한 때문이었다. 종서도 역시 추천하므로 회령 절제사를 삼았었는데 회령으로부터 돌아왔기에 내가 북변의 일을 묻고자 하여 내전에서 불러 보았더니 호문이 이렇게 아뢰었다.

『종서는 겁 많고 나약하여 장수로는 함당치 않는데 또 활쏘고 말타는 것은 그가 잘하는 바가 아니라 다만 야인에게 위엄을 뽐내려고만 할 뿐이니 능히 못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정옥은 위험하여 제압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오도리족과 동진 지가 오래입니다. 아마 경원으로 옮기지 않았었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서로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은 오로지 회유하는 것만을 일삼았으므로 이에 범찰(凡察)과는 사랑하기를 형제같이 하였고 범찰 역시 신을 사랑해서 부락이 평안했었습니다. 범찰은 또 종서도 싫어했습니다. 감사는 마땅히 문신을 써야 하고 장수는 마땅히 무신을 써야 하니 징옥으로 종서를 대신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종서가 사실은 호문을 천거했었는데 호문은 이에 도리어 종서를 참소하여 해치기를 이와 같이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묻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하였으므로 나는 죄를 주지 않았었다. 징옥이 사납다고 하면서도 이에 도절제사를 삼았으면 하였으니 그 말의 변하고 거짓됨이 이와 같다. 너는 그것을 알아두어라. 종서의 공은 심히 커서 소인이 능히 이간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지금 막 새로 이주한 백성들이 4진(鎭)에 모여드는 때를 당하였다면 종서는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4진이 이미 안정되었고 그 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의방으로 나가 진무(鎭撫)한지 이제 이미 7~8년이나 되어 집안 일을 돌보지 못하였으니 또한 불쌍하다.

장차 도절제사가 될만한 인물을 택하여 부장(副將)을 삼아 종서로 하여금 친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매사를 같이 의논하여 변방 방비하는 일을 익히면 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병조판서 황보인, 참판 신인손과 더불어 의논하여 장수 될만한 자를 아뢰어라.

그래서 의주목사 이양(李穰, ?~1453) 등 여러 사람이 천거되었으나 김종서가 친임해야 하므로 일단 인신을 보류한다.

그러나 세종은 김종서를 서울로 불러 올릴 생각을 굳혔으므로 6월 19일에 죄승지 성념조(成念祖, 1398~1450)에게 명하여 의정부와 영의정 황희(黃喜, 1363~1452)의 집에 가서 김종서를 대신할 만한 인재를 비밀히 의논하여 천거하라고 하니 모두 좌부승지 이세형(李世衡)을 천거한다.

한편 박호문은 참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제2 계획으로 회령 부근에 터잡고 사는 오도리족 주장 범찰과 동창(童倉)을 꼬드겨 6월 26일에 관하 3백여호를 이끌고 동가강가에 사는 이만주에게 달아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김종서가 덮어쓰게 한다.

더구나 이들로 하여금 장차 명나라 조정에 조선이 유인하고 협박하므로 달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소하겠다는 소문을 내게 하자 세종같은 현군도 일시 이 계략에 넘어가 김종서를 문책하여 해임하고자 한다.

그래서 7월 5일 인순부윤(仁順府尹) 김돈과 도승지 성념조를 불러 보고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로부터 변방의 장수가 되어 허물이 없는 사람은 드물었으니 한나라 조충국(趙充國)이나 당나라 이정(李靖), 고려 윤관(尹瓘, ?~1111) 등이 모두 변방에서 공을 세우고도 마침내 물의를 일으켰었고 근래에 최윤덕, 성달생, 하경복도 변방을 맡겼었더니 끝내 허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허물을 모두 불문에 부쳤었다. 이는 변방의 장수를 중시하여 모든 것을 위임했었기 때문이다.』

김종서는 본래 유신(儒臣)으로 몸집도 작고 무예에 능치 못하며 인사(人事)행정에 능해서 장수가 되기에 마땅치 않은 사람이었다. 다만 일에 임해서 근면 성실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정밀하고 상세한 것을 취했었을 뿐이다. 4진을 신설할 때 처리를 올바르게 하여 그 효과를 빠르게 한 것은 포상할 만한 일이라 작은 허물이 있었더라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제 야인에게 위엄과 용맹으로만 대하고 너그러움을 베풀지 않아 배반하여 도망하게 하였으니 부끄러운 일이며 장차 중국에 웃음거리로 주게 되었다. 경 등은 우의정 신개(申槩), 우찬성 하연(河演, 1376~1453)과 의논하여 김종서와 이사종의 해임 가부를 아뢰도록 하라.

그러나 세종대왕은 역시 현군이였다. 성군으로의 자부심이 강하였기에 여진족을 잘못 다스려 명나라에 그들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으므로 화가 나서 잠깐 총명이 흐려졌었지만 곧 이 모든 사건들이 박호문의 반간책(反間策)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

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이 가장 믿을만 하고 김종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조판서 황보인을 평안·함길 양도 도체찰사로 삼아 현장에 파견하여 여진족의 도주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7월 13일에는 도승지 성념조와 우부승지 이승손(李承孫)을 사정전으로 불러서 박호문이 오도리족 주장 범찰과 교결(交結)하여 김종서를 궁지로 몰아넣은 죄를 묻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해 아뢰라고 한다.

박호문이 김종서를 참소하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세종에게 늘어놓았던 얘기와 범찰이 달아난 사실을 연계시켜 바로 그 실상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박호문은 범찰과 의형제를 맺어 범찰을 형이라 하였으며 범찰은 호문에게 『자네가 있으면 나도 있겠지만 자네가 가면 나도 도망가겠다』고 하면서 호문이 병들자 문병와서 울기까지 하였다고 자랑했었다.

그리고 김종서는 힘센 무사도 아니고 활쏘기나 말타기도 잘 못하면서 성질이 조금하여 야인을 심히 엄하게 대하므로 야인들이 미워하여 간사한 사람으로 지목한다고도 말하였었다는 것이다. 비장(裨將)이 되면 웅당 원수와 동심협력하여 이적을 대하는 방법을 한결같이 함으로써 한 지방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직분인데 도리어 원수와 이적을 이간시켜 끝내 배반해 도망가게 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내려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세종의 뜻이었다. 성념조는 신개 하연 등과 의논하고 평안·함길 양도 도체찰사인 황보인이 돌아오면 회령방어의 잘못을 상세히 알 수 있을 터이니 그가 돌아온 이후에 국문하자고 아뢰었다. 드디어 7월 17일 황보인이 평안도와 함길도를 살펴보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김종서의 서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속에서 박호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박호문이 상호군(上護軍) 조석강(趙石岡, ?~1444)을 시켜 자신이 세종께 김종서를 참소했던 내용을 김종서에게도 세종 모르게 귀뜸한 사실과 박호문이 회령에서 토목공사를 거창하게 벌이다가 김종서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참소한 전말 등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세종은 자신이 박호문에게 일시나마 농락 당하여 김종서를 해임시키려 했었던 사실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박호문이 김종서에게 자신이 참소한 내용을 몰래 전하여 군신을 이간한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자책이 앞섰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7월 18일에 의정부로 하여금 박호문의 추국 여부를 상의하여 아뢰라 하고 즉일로 의금부에 전지하여 그 죄상을 추국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김종서에게 전지를 내려 박호문의 참소에 농락당한 경위를 자세히 알리고 세종 자신은 누가 어떤 참소를 한다 해도 김종서를 절대 신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직무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박호문은 지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고 있다는 말로 사과를 대신한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김종서도 그들의 간계에 빠져서 대응을 잘못된 것은 실수가 아니겠느냐며 세종 자신의 실수만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내용으로 전지를 마감한다.

국문한 결과 박호문의 죄상은 참수형(斬首刑)에 해당하는 중죄로 밝혀져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세종은 그가 독자이고 과거장의 이만주 정벌 때 세운 공이 있다 하여 한 등을 내려 목숨만은 살려준다.

그러자 드디어 8월 30일에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변방의 수령으로 병을 핑계하고 임금을 속여 사직한 죄와 임금과 장수를 이간한 죄, 임금이 하지 않은 말을 꾸며서 외방에 전파한 죄는 참수(斬首)에 해당하는 죄이니 마땅히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음 호에 계속>

420~69)에게 출가시켜 왕실과 3점 사돈을 맺어 놓고 있던 병조판서 최사강(崔士康, 1385~1443)은 어떻게 하든지 김종서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병조의 인사에서 김종서의 천거를 유도하여 인사청탁이라 모함한다.

세종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김종서와 함께 최사강을 의금부에 잡아 가두고 국문하여 실상을 밝혀낸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그 전날에서야 의금부 옥에서 무혐의로 풀려나와 승정원으로 출사한 김종서에게 세종은 이렇게 위로한다.

「위에서 신임하여 쓰게 되면 동류들이 그를 미워하게 된다. 예부터 그런 것이니 부끄러워할 것 없다. 이 일로 꺾이지 말고 더욱 심기를 가다듬어 예전처럼 공무를 받들도록 하라.」

여기서 더욱 감격한 김종서는 이후 여러해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진을 정벌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확정짓는 대공을 세우게 된다.

현군이 양신(良臣)의 마음과 능력을 믿고 알아주는데 어찌 신명을 바쳐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김종서는 세종 19년(1437) 10월 12일로 그 모친 성주(星州) 배씨(裴氏)의 대상날이 다가오자 대상 제사에만은 참례하기 위해 휴가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그러나 세종은 8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전지를 내려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경이 계청하여 이른 바를 보니 「모친이 돌아가는 것도 뵈지 못하고 거상도 법대로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휴가를 청하여 대상의 예를 몸소 치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미 경의 지극한 정리를 알았지만 처음부터 국가의 일이 중대하여 부득이 경의 상을 중단시키고 일으켜 썼었는데, 하물며 지금 야인들이 다투어 와서 고변(告變)하기를 잡종들이 장차 군사를 일으켜 침략하려 한다고 하니 이렇게 방어가 가장 급한 때이겠으며, 경원의 성 쌓는 일도 이제 막 기공하여 만명의 사람들이 들에 깔려 있으니 이렇게 방수(防戍)하는데 가장 긴요한 날이겠는가!

경의 모친의 자식이 다만 경 뿐만 아니라 형도 있고 누이도 있으니 그 상을 치러낼 것이다. 경은 나라 일을 하고 형이 대상을 치른다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예경(禮經)에 대상을 치르는데 휴가를 준다는 글이 있기는 하나 이는 평시의 일이니 오늘 같은 일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경도 마땅히 안심하고 진영(鎭營)을 지켜 더욱 무위하고 편안케 하는 계책을 다함으로써 내 뜻을 몸 받도록 하라.

3년 동안 거상하는 것도 허락치 않더니 이제 3년상을 탈상하는 대상제사에 참례하는 것조차 허락치 않고 북변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한다. 정녕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큰뜻이 없다면 이런 가혹한 왕명에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 놓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김종서로 하여금 이런 세종의 가혹한 명령을 오히려 달게 받게 하였으니 김종서는 두말없이 사정을 억제하고 왕명을 받들어 북변을 진무해 나간다. 이에 세종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대상이 지난 10월 20일에 이런 내용의 전지를 내린다. 대상에 참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김종서가 보고 싶어 한달쯤 휴가를 주어 올라오게 하고 싶었지만 그 사이 어떤 변고가 일어날지 몰라 허락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윽고 북관 수만 백성의 생명이 김종서의 한몸에 맡겨졌으니 거취를 함부로 해서 안된다고 하여 책임의 막중함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김종서의 품계를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로 높여서 대신의 반열에 들게 한다. 이에 감격한 김종서는 세종 20년(1438)

1월 1일에 글을 올려 사례하는데 이때 김종서의 나이는 56세였고 세종의 나이는 42세였다. 현군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북변의 절대권자로 군림하면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흠어져 사는 여진족들까지 제압하여 국경을 백두산과 두만강까지 확장하는 대공을 세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제 품계가 대신의 반열에까지 올랐으니 당시 김종서의 기세가 어떠하였겠는가. 그래서 이런 시조를 지어 불렀다 한다.

장백산(長白山)에 기(旗)를 꽂고 두만강(豆滿江)에 말을 쫓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회나.

어떻다 능연각(凌煙閣) 상(上)에 누일골을 그릴꼬.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고 물결이 높으면 내려가듯이 기세가 절정에 이르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서 이 해부터는 북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이기 시작한다.

김종서가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왔던 경원도호부사 이정옥(李澄玉, ?~1453)이 14세에 맨손으로 호랑이를 사로잡았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체력과 담력을 타고 난 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 초에 풍증(風症)이 생겨 병석에 눕게 되는데 이어서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양산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3월 1일에 경원도호부사의 직무를 김종서에게 겸직시키며 이정옥도 백일 뒤에 일으켜 보내겠다 하지만 결국 병이 깊어 휴양을 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김종서는 5월 20일에 박이녕(朴以寧)을 추천하여 경원도호부사로 삼는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김종서의 서울집으로부터 부인 파평(坡平) 윤(尹)씨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다. 마침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터에 부인의 와병 소식을 듣게 되자 김종서는 북변을 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11월 14일 함길도 도절제사직의 사면을 청하는 사직소를 올린다. 북방의 책임을 맡은 지가 6년이나 되었는데 별로 이루어 놓은 공은 없고 허물만 많이 지어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근심이 병이 되어 점차 먹는 것이 내리지 않게 되어 몸이 몹시 쇠약해졌고 거기다 믿을 것은 못되지만 금년 겨울 이후부터는 자신의 운수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으로 인하여 후시 변방에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적임자를 보내어 교체해 주면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내용이다.

세종이 이 청을 들어줄리가 없다. 북문의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이제 겨우 북방이 안정되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도 김종서의 공로인데 아직 모든 것이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임한다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대신 아내의 간병을 위해 왕명으로 휴가를 주어 상경케 하니 김종서는 세종 21년(1439) 1월 23일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김종서의 부인 파평 윤씨는 공주 고향집으로 내려가 병을 조섭하고 있었으므로 김종서는 바로 공주로 내려가서 한동안 간병하다가 상경하니 세종은 2월 17일에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잔치를 베풀어 김종서를 위로하고 안장 갖춘 말 한필을 하사하여 그 노고를 치하한다.

2월 19일 김종서가 함길도 임지로 귀임하기 위해 세종께 하직을 고하자 세종은 병조판서 황보인과 참판 신인손(辛引孫, 1384~1445), 도승지 김돈(金墩, 1385~1440)에게 명하여 김종서와 함께 변방의 군무를 의논하게 한다. 그때 그들의 의논은 한낱이 되어서야 파하였다고 한다. 이때 김종서는 함길도의 각 고을 수령은 한것 방수(防戍) 뿐만 아니라 야인을 응접해야 하므로 인물과 언변이 두루 갖추어진 인물을 가려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세종은 이를 가납하여

2월 20일 이조에 이 내용을 전지한다.

그리고 윤 2월 15일에는 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함길도 절제사 김종서의 아내가 지금 공주에 살면서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어육(魚肉)의 종류는 다소를 논하지 말고 연속하여 주어 섭양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이때 충청도 관찰사로 있던 정인지(鄭麟趾, 1396~1478)는 김종서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던지 왕명을 바로 거행하지 않았던 듯, 3월 5일에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이 서릿발 같은 왕명을 다시 내린다.

「전자에 전지해 이르기를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의 아내가 병으로 고생한 지가 오래이므로 어육을 연속하여 대어주라고 하였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사연을 갖추어 아뢰고 지금부터 어육을 연속해 주도록 하라.」

세종대왕이 몹시 진노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그랬던지 이런 왕명이 내려진 직후인 6월 12일자 인사행정에서 충청도 관찰사는 윤형(尹炯, 1388~1453)으로 교체된다.

이날 김종서에게는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가 제수되었다. 그리고 7월 21일에 김종서가 그 만행인 김종홍(金宗興)이 황주목사로 내려가면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게 되니 서울 근처의 수령으로 바꿔달라는 글을 승정원에 보내자 세종은 김종홍을 남양도호부사로 당장 옮겨주는 은전을 다시 베푼다.

세종이 김종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사실들이다. 이렇게 김종서가 세종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북변의 절대권자로 오래 군림하게 되니 자연 안팎에서 이를 시기하고 원망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종서의 인척으로 그가 천거하여 회령절제사를 지내고 돌아온 박호문(朴好問, ?~1453)이 세종에게 김종서를 참소하는 일이 일어난다.

세종은 참소인 줄 짐작하여 못들은 척 하려다가 근래에 김종서가 올린 서장에서 「회령의 절제사와 관관은 병중에 있고 관청에는 저축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박호문에게서 들으니 회령에 백성들이 들어와 산이래 자애로운 정치를 보지 못하여 7년 사이에 정군이 1백52명이나 도망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며 다른 진도 이러한가. 절제사 박호문과 관관 이원손(李元孫)이 병든 것은 불과 두어달인데 어떻게 저축이 바닥날 수가 있는가 하고 11월 12일에 김종서에게 전지를 내려 묻는다.

박호문의 참소가 있었던 사실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김종서는 12월 10일 임금께 답장을 올려 사실 보고를 한다.

경흥은 도망자가 2호이고 경원은 도망자가 없으며 중성은 13호인데 회령만 여러 해에 걸쳐 도망한 것이 도합 1백52호이다. 이는 그간 이곳을 다스렸던 이정옥과 박호문이 각기 하나는 백성을 어루만지는데 서툴렀고 하나는 지나친 토목사업을 벌여 괴롭혔기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그래서 이미 이정옥에게는 은혜가 적고 위력만 많은 것을 면책하였고 박호문에게는 경력(經歷) 이사증(李師曾)을 보내어 토목사업을 중지시키고 장려하게 지은 관청건물을 헐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었다고 보고하며 이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각기 야인을 잘 방비하는 장점과 잘 어루만지는 장점이 있어 모두 변경을 지키는데 필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에 세종은 이 선에서 이 무고사건을 덮어두려 하였으나 박호문은 오히려 참소 내용을 외부에 흘려 사헌부로 하여금 김종서를 탄핵하게 하려 하니 사헌부는

진을 베풀어 국경을 수비하겠노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리고 현재 조정에서 용성진을 경계로 국경을 삼자는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리를 모르는 망언이며 이런 식으로 요새를 경계로 하자고 한다면 장차 마천령이나 철령으로 국경을 삼자는 망언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고 통박한다.

이어서 용성으로 경계를 삼는다면 1불의(不義), 2불리(不利)가 있다고 하며 열거하는데 선조의 땅을 줄이자는 것이 1불의요, 산천의 험난함이 없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2불리라고 한다.

그에 반해 두만강을 경계로 하면 왕조를 일으킨 땅을 회복하니 1대의(大義)가 되고 장강(長江)의 험난함이 있어 지키기 쉬우니 2대의(大利)가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반대 이유가 되는 민력의 피폐와 경비 부족, 군사력 부족, 야인들의 지속적인 침략 등에 대한 세종의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 북변 경영을 시작하던 당시의 어려움에 비하면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당당하게 피력한다.

세종은 이 밀서를 보고나서 곧 환관 엄자치(嚴自治)를 시켜 어의(御衣) 한 벌을 김종서에게 하사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고 한다.

「내가 북방의 일에 밤낮으로 걱정하여 마음 들떠 없더니 이제 경의 글을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에 북변 경영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을 얻은 세종은 8월 20일에 김종서에게 전지를 내려 평안도 압록강 연변의 축성례에 따라 두만강 연변에 있는 모든 성도 중국의 성처럼 성위에 옥우(屋宇)를 두어 항상 들어가 지킬 수 있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되니 8월 29일, 홀라온(忽刺溫) 추장의 귀순을 시작으로 점차 야인들이 귀순해 와서 김종서의 보호를 자청하게 된다. 아마 이런 시기에 이 호기에 찬 시조를 읊었을 것이다.

김종서는 자(字)가 국경(國卿)이고 호(號)가 절재(節齋)이며 본관이 순천(順天)이다.

태어난 곳은 충청도 공주목(公州牧) 요당면(要堂面) 혹은 藝堂面) 비계실(飛溪谷)이니 현재의 공주시 의당면(儀堂面) 월곡리(月谷里) 비계실이 그곳이다.

공주에서 동북쪽으로 삼십리쯤 떨어진 곳으로 백제 고찰인 동혈사(東穴寺, 현재는 銅穴寺로 쓰고 있다)가 있는 천태산(天台山)의 남쪽자락 끝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천태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들이 금강까지 이어지면서 첩첩산골을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서남쪽으로 흘러나가는 동혈천을 따라 전개되는 삼십리 긴 들이 금강까지 터져 나가 전경(前景)만은 일망무제하다.

그 긴 들 저편에는 공주의 진산인 공산(公山)이 붓끝처럼 솟아나서 아득한 자태의 문필봉(文筆峰)으로 그림처럼 끝을 막아주고 그 아래로 금강이 굽어져 흐르니 어찌 이곳에서 문장과 지략을 겸비한 문무겸전의 대인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김종서의 생가터 바로 아래 우측에는 의당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계속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다.

충의를 지키다 참화를 입어 행장이 모두 인멸되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이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다행히 「문종실록」 권 10 원년 신미(1451) 11월 28일 임술조에 「우의정 김종서가 명년에 나이 70에 차게 된다 하여 벼슬에 나오지 아니하니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문종 2년(1452)에 70세가 된다면 그의 출생년은 고려 우왕 9년(1383) 계해(癸亥)에 해당한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국사 대사전(國史大事

典)」과 「한국인명 대사전(韓國人名大辭典)」에서 고려 공양왕 2년(1390) 출생이라 잘못 기재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 사전들이 출판되어 나온 1976년 이후에는 김종서의 출생연도를 의심없이 공양왕 2년(1390)으로 옮겨 적고 있으니 1980년에 김종서의 탄생지인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비계실 고택 유허지에 세워놓은 김종서장군 행적비(行蹟碑)와 1987년에 김종서의 묘소 아래인 공주시 장기면(長岐面) 대교리(大橋里) 밤실(粟谷)에 세워놓은 신도비(神道碑)에도 그대로 잘못 새겨져 있다.

더구나 신도비에서는 이 출생연도를 확신하고서 「15세 소년으로 태종 5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1390년생이라 하더라도 16세이다)」고 기술하는 망발을 범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5년 1월에 출간되어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까지도 이 잘못된 바로 잡아지고 있지 않다. 요즘 우리나라 학자들의 허술한 연구자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일이라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국조방목(國朝榜目)」 권 1 태종 5년 을유방(乙酉榜)의 방목(榜目)에 보면 김종서가 동진사(同進事) 23인 중에 들어 있으니 이 해에 문과에 급제한 것은 틀림없다. [세종 20년(1438) 무오 식년시에서부터 동진사과를 정과(正科)로 고쳤다]

그러나 15세의 미성년자가 아니라 23세의 어엿한 청년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젊은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김종서는 문과 급제자들이 거치는 하위직부터 벼슬길에 나가게 되는 듯한데 「태종실록」에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종7품 상서원(尙瑞院) 직장(直長) 때부터이다.

이로부터 죽산(竹山) 현감(鎭監)(종6품)을 거쳐 세종 즉위년(1418)에는 병조좌랑(正6품)으로 오르는데 이때 상왕인 태종과 세종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세종의 신임을 독차지해 가게 된다.

그때의 상황을 용재(用齋) 성현(成俔, 1439~1504)은 「용재총화(慵齋叢話)」 권 10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최(崔) 제학(提學) 흥효(興孝)는 글씨 잘 쓰기로 세상에 이름이 났었는데 그 필적은 오로지 진(晉)나라 유익(庾翼)의 필체를 모방하였었다. 비록 붓놀림이 순수하고 익숙했지만 거칠고 촌스러운 모습을 면하지는 못하였다. 태종이 친정하던 날 제학이 이조 낭청으로 임시하여 사람들의 고신(告身)을 쓰는데 붓을 꼬지락대며 오래도록 이루어내지 못하자 김종서가 병조 낭청으로 옆에 있다가 한 붓으로 수십장을 휘둘러 써내고 쓰기를 마친 다음 옥쇄를 찍는데 글씨와 옥쇄 자국이 모두 단정하였다. 태종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쓸만한 인재로구나, 하니 종서는 이로 말미암아 피어나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그해 11월 29일에 강원도 토지조사 사업에 민원이 발생하자 김종서를 행대감찰(行臺監察)로 파견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는데 이때 세종의 나이 22세이고 김종서는 36세였다.

김종서는 현지로 내려가 민정을 살핀 다음 흉년으로 기민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조세를 면제해 주기를 주청하니 세종은 대신인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서의 청을 들어준다. 이어 원년(1419) 3월 6일에는 다시 김종서를 충청도 행대감찰로 파견하여 춘궁기의 민정을 살피게 하자 김종서는 충청도 기민이 12만2백40명인데 이들에게 나눠준 쌀이 1만1천3백11석이고 장이 9백49석이라는 자세한 보고를 올린다.

이런 기민한 행정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종은 더욱 김종서를 아끼게 되니 10월 24일에는 사간원(司諫院)

우정언(右正言 : 정6품)으로 벼슬을 올려준다.

그리고 다음해인 세종 2년(1420)에는 광주(廣州) 판관(判官 : 정5품)으로 벼슬을 올리고 의주판관 등을 거치게 하여 지방행정을 익히게 한 다음 세종 5년(1423) 5월 27일에는 사간원 우헌납(右獻納 : 정5품)으로 불러 올려서 사헌부 지평(持平 : 정5품), 이조정랑(吏曹正郎 : 정5품) 등 요직을 거치게 한다.

그리고 세종 9년(1427) 1월 18일에는 의정부 사인(舍人 : 정4품)으로 승진시키는데 이 해 2월에 황해도에서 민원이 생기자 다시 김종서를 경차관(敬差官)으로 보내어 이를 해결하게 하고 이 공로로 7월 4일에는 사헌부 집의(執義 : 종3품)로 올려준다.

이렇게 김종서가 사법부의 실무를 총책임지게 되었을 때 세종의 만형으로 세종에게 세자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提, 1394~1462)가 국왕을 속이고 불법을 자행한 일이 드러나자 김종서는 양녕대군에게 작록을 회수하고 도성 출입을 금지시키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전후 15차례나 상소를 올린다.

화가난 세종은 「성인(聖人)의 교훈에 「세번 간(諫)하여도 듣지 않으면 간다, 고 하였으니 그대들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말이 많은가」하고 꾸짖는다. 김종서가 대간들과 함께 사직하니 세종은 김종서를 전농윤(典農尹)으로 좌천시킨다.

그러나 세종은 다음해인 11년(1429) 9월 30일에 김종서를 승정원 우부대언(右副代言), 즉 우부승지(右副承旨 : 정3품 당상관)로 승진 발령시켜 좌우에서 가까이 왕을 모시게 하는 은전을 베푼다.

이때 김종서의 나이는 47세, 세종의 나이는 33세였다. 이제 중신의 자리에 올라 국왕과 함께 정책을 의결하는 중임을 맡게 된 것이다. 이어 12년(1430) 7월 10일에는 좌부대언으로 승진하고, 이 해 12월 8일에는 우대언, 즉 우승지로 승진하는데 우부대언 때 좌부대언을 하던 황보인(皇甫仁, ?~1431)도 지신사(知中事), 즉 도승지로 승진하여 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세종 13년(1431) 1월 25일에는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세종이 「고려사(高麗史)」 편찬의 잘못을 지적하며 태종실록 편찬 후에 이를 개찬할 뜻을 밝히자 이에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영평(永平) 보장산(寶藏山)으로 어가를 모시고 사냥을 나갔다가 진논개비 내리는 곳은 날씨를 만나 몰이하던 백성들이 다수 얼어죽는 불상사를 당하는데 이를 직절하게 조치하지 못한 죄로 지신사 황보인이 파면되자 김종서로 2월 27일 함께 파면시켜 달라 청하지만 세종을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세종이 김종서에게 승정원에서 밤낮으로 수직하면서 왕명을 밖에 전달하라는 특명까지 내린다. 그 실록 기사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좌대언 김종서에게 전지하여 이르기를, 내가 병이 있고 마침 사신이 온 일을 만나서 번거로운데 환관이 말의 오가는 것을 다 전하지 못하니 심기(心氣)가 모두 괴곤하다. 경은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밤낮으로 공소(公所)에 있으면서 내가 말한 바를 밖에 선전하도록 하라」

여간 신임하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명령이다. 현군 세종으로부터 이런 신임을 얻고 있었으니 김종서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이었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러나 김종서에 대한 세종의 이와 같은 총애는 동료들의 시기를 불러오게도 하였으니 딸 둘을 태종왕자 함녕군(咸寧君) 인(愼, ?~1467) 과 세종왕자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 1426~57)에게 출가시키고 손녀딸 하나는 세종왕자 임영대군(臨瀛大君) 구(瑀,

■ 종친께 알립니다. 1997年 11月 14日 節齋公의 功績顯揚紀念會를 行事하면서 우리 門中을 가장 빛낸 分의 功績을 再照明하여 우리 後孫들로 하여금 그 分의 高潔한 희생을 萬分의 일이라도 諒아드리는 계기로 三아야겠다는 生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그 分의 生애를 極명하게 잘 表現한 글을 1997年 1月 3日부터 20회에 걸쳐 韓國經濟新聞에 주간연재로 실은 바 있는 作家 崔完秀씨의 “忠義列傳”을 發攄하여 이번 宗報 제16호부터 5회에 걸쳐 실습니다. 전국에 계신 宗친께서는 읽어 보시고 우리 後孫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시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주> ■

忠義列傳 ①

節齋 金宗瑞

「삭풍(朔風)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明月)은 눈속에 찬데, 만리변성(萬里邊城)에 일장검(一長劍) 짚고 서서, 긴과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김종서(1383~1453)가 여진(女眞)을 정벌하여 육진(六鎭)을 개척하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해 갈 때 두만강가에 석성을 쌓고 장대(將臺)에 올라서서 대장부의 기개를 한껏 뽐낸 호기로운 시조이다.

김종서는 세종 12년(1430) 8월 16일에 우대언(右代言), 즉 우승지(右承旨)가 되어 세종을 측근에서 모시면서부터 북변을 시끄럽게 하는 여진족 즉 야인을 정벌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짓자는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수시로 진언한다.

이에 세종대왕은 조종(祖宗)의 땅을 한치도 줄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김종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종 14년(1432) 12월 9일 파저강(婆猪江, 佟佳江, 高구려의 발상지인 桓仁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족 추장 이만주(李滿住)가 여연(閔延)군에 침입하여 백성과 가축을 약탈해 달아난 것을 계기로 15년(1433) 3월 17일에 평안도 도절제사(都節制使) 최윤덕(崔閔德, 1376~1445)에게 명하여 이를 정벌하게 하니 최윤덕은 평안도 군사 1만과 황해도 군사 5천을 이끌고 4월 19일에 정벌을 성공적으로 끝마친다.

그런데 이 해 11월 29일에 현재 회령(會寧)인 알목하(斡木河)에 우리 조정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 살던 오도리(吾道里, 斡朶里로 표기하기도 한다)족 추장 동맹가침복아(童猛哥帖木兒) 부자가 오적개(兀狄哈)족의 침입을 받고 살해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에 세종은 북변의 국경을 확정할 기회라고 생각하여 북방경략의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좌승지 김종서를 12월 9일자로 함길도 도관찰사(威吉道都觀察使)로 임명한다. 김종서가 51세, 세종이 37세 나던 해의 일이다.

즉시 부임한 김종서는 불과 한달도 못되는 시기인 다음해 세종 16년(1434) 1월 6일에 도정 전반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올리고 2월 14일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하경복(河敬復, 1377~1438), 병마절제사 성달생(成達生, 1376~1444), 영북진절제사 이징옥(李澄玉, ?~1453) 등과 함께 성을 쌓아 진을 베풀만한 곳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세종께 보고한다.

그리고 나서 석막(石幕)에 설치했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白顔愁所)로 옮겨 종성(鍾城)이라 하고 알목하에 회령(會寧)진을 설치하고 회절가(會叱家)에 경원(慶源)진을 설치하며 공주(孔州)에 공성(孔城)진

을 설치한다. 두만강변에 4진을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북변을 성공적으로 정리해 나가자 세종은 김종서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소신있게 처리해 나가게 하기 위해 17년(1435) 3월 27일에는 함길도 병마도절제사의 자리로 옮겨 앉게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해 8월에 김종서는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친의 간병을 위해 사직을 청하니 세종은 9월 4일에 왕명으로 불러서 모친을 뵈게 하는 형식으로 이직을 허락하고 그 직무는 도순검사(都巡檢使) 하경복이 잠시 겸직하게 한다.

김종서가 상경하자 세종은 9월 9일에 그를 불러 북변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일을 자세히 묻고 이미 어의를 보내어 극진히 보살피게 하던 그 모친의 병환을 걱정한다. 그러나 그 모친이 병환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니 세종은 11월 10일 김종서에게 모친 장례 후에 임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다음 해인 세종 18년(1436) 1월 21일 김종서는 모친의 장례를 마치고 3년상을 치르게 해달라고 상소를 청하지만 세종은 이를 듣지 않고 백일 후에 상복을 벗고 임지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린다.

그리고 2월 1일자로 김종서를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로 재임명하는 칙지를 내리고 뒤이어 2월 11일에는 상복을 벗고도 체식을 고집하여 심상(心喪)을 지키고 있는 김종서에게 다시 왕명으로 육식을 권하고 변방을 지키는 장수의 책임이 막중함을 경계한다. 이런 상황이니 김종서는 왕명을 받들어 함길도 임지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4월 19일에는 부거(富居)성을 용성(龍城)으로 옮겨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11월 9일에는 내년 가을에 야인을 정벌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상소로 밝힌다.

여기서 김종서는 야인의 상대 방법에 대한 유자(儒者)의 통념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그 대처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일단을 소개해 보겠다.

「유자들은 모두 이르기를 이적(夷狄)을 대하는 방법은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곧 추격하지 않아서 원수를 맺지 않고 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며, 또 이르기를 화친이 귀하니 이 계책을 얻은 자는 편안하고 이 계책을 잃은 자는 위태롭다 합니다. 신도 또한 상시에 있어서는 매양 이렇게 말하였을 뿐입니다. 신이 북쪽가에 나와 지키면서 야인들과 더불어 섞여 살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그 정상을 자세히 알게 되니 야인은 천대만상이라 한가지 논리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 없으면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위엄이 없으면 그 뜻을 두렵게 할 수 없으며 은혜가 과하면 교만하고 위엄이 과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해서 난을 일으키는 자는 위엄을 두려워해서 후시 감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교만해서 걱정거리가 되는 자들은 경멸하여 더욱 그 해독을 펼치니 은혜와 위함은 한쪽만 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해인 세종 19년(1437)은 김종서가 55세, 세종이 41세 되는 해였다. 이미 장년기에 접어들어 불혹(不惑)과 지천명(知天命)의 단계에 이른 현군과 명신이 한마음 한뜻으로 야인을 정벌하여 북변을 정리하고자 하는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어찌 그 성과가 미미하겠는가.

4월 11일에는 도절제사 김종서와 감사 이숙치(李叔時, 1390~1446)가 함께 상소하여 오적개 정벌의 불가피성을 다시 주장한다.

저들은 인의지심(仁義之心)이 없고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을 토벌하지 않으면 조선이 겁 많고 약해서 토벌하지 않는다고 여겨 우리 국경을 자주 침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세종은 의정부에서 이의 가부를 의논케 하니 동지중추부사 정홍지(鄭欽之, 1378~1439), 호조판서 심도원(沈道源, 1375~1439), 병조판서 황보인(皇甫仁, ?~1453) 등이 모두 4진이 신설되어 아직 공고치 않으니 멀리 나가 토벌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김종서의 식견과 판단력을 믿는 세종은 북변정책의 실패가 우려되어 기회 닿는대로 야인의 침략 여부와 방비 태세에 관해 김종서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하문하는데 끝내 안심이 안되어 8월 6일에는 세종 자신이 친히 짓고 세자로 하여금 친서케 한 밀서를 환관에게 주어 김종서에게 직접 전하게 한다.

여기서 세종은 자신의 북변정책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김종서에게 알리고 야인들을 우리 강토 안에 들어와 살 수 없다고 한 태종의 뜻을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라고 한다.

김종서는 이 밀지를 받고 감읍하여 역시 지필로 밀서를 올리는데 세종이 일찍이 조정의 땅은 한 자 한 치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하며 군신들의 의견을 좇지 않던 일과 그때 자신이 대신을 설득하여 석막에 영북진을 설치하던 일들을 상기하며 이제는 북변의 요해처를 자신이 모르는 곳이 없으므로 그 요해처마다 군

始祖墓祀嚴修

今年 十月 三十一日은 음력 十月 十一日 一자로 우리의始祖 平陽君의 墓祀日이다. 海南에서 오신 奉斌宗親의 執禮로 始作한 墓祀는 初獻官 卍科元, 亞獻 相文, 終獻 秉均宗親과 祝官에는 贊誥宗親이 分定되어 始終一貫 嚴肅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嚴修되었고 山神祭 亦是 獻官에는 大昌宗親이 맡아 舉行되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東昌幹事



와 炳鎰 前任 常任顧問이 參禮하고 香料도 奉呈하였다.

이에 앞서 祭祀 전날인 十月 三十日 저녁에는 全國各地에 宗親들이 同源齋에 모여 그간의 始祖 位畚의 耕地整理 狀況을 都有司인 南洙宗親이 說明하고 進入道路도 畚의 省墓하는데 大型車 出入이 容易하게 된 現況을 說明하고 光州에 계신 卍科元(中央宗親會副會長) 博士의 手고가 많았다는 說明과 함께 金載俊 副會長이 始祖의 祭享費用으로 一金 五百萬 원을 獻誠한 事實에 對하여 여러 宗親들이 感動하였다. (一無

芳春書院 廟庭碑 建立除幕

一九九七年 四月 十六日

全羅南道儒林의 主管으로 春享도 嚴修

全羅南道 儒林과 海南郡의 宗親들은 今年 4月 16日(陰曆 3月 10日) 11時에 芳春書院 現地에서 廟庭碑를 세우고 除幕式을 가졌으니 우리 門中의 大盛事이다(建立推進委員會 會長 金科元).

芳春書院은 正祖八年(1784年) 甲辰에 海南儒林의 發議로 溪谷面 芳春里에 創建하여 國家에는 忠義와 功烈로서 貢獻하고 아울러 우리 門中을 빛내신 中始祖 相公 세 분을 祭享하는 順天金氏의 祠堂이었다.

太宗朝의 佐命功臣 平陽府院君 議政府 檢校左相이신 襄景公 諱, 承運과 六鎭을 開拓하여 國境을 確定, 關北地方의 安定을 이룩하고 文宗의 顧命 大臣이며 左議政에다 諡號가 忠翼이신 節齋公(諱, 宗瑞) 그리고 宣祖 4年 辛未(1571年)에 태어나서 仁祖 때에 靖社功臣勳과 寧國功臣勳에 策錄되고 領議政에 오르고 諡號가

文忠이신 北渚公(諱, 濂) 세 분을 奉享하는 三相祠일러니 高宗 5年 戊辰(1868年)에 依命 撤去하였다. 그후 光武 辛丑(1901年)에 壇祀로 祭享을 모셔 오다가 4253年 庚申(1920年)에 儒林과 海南의 後孫들이 뜻을 모아 옛터에 書院을 重建하고 위 三相公과 世宗朝의 潭陽府使公(諱, 孝友)을 追配하면서 芳春書院으로 改稱되고 乙亥年(1995年)에 成均進士 望美堂公(諱, 孝孫)을 年代順으로 모시고 있다.



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碑文全文을 여기에 옮겨신고 이 글을 맺는다. (一無)

芳春書院廟庭碑文

하늘은 道요 道는 仁義의 本體이요 사람은 仁義로 聖學의 道를 傳授함에 있는 것이다. 祠院은 忠義之士를 奉安하고 享祀하며, 搢紳士儒들이 道義를 講論하며 後學을 誘掖하여 彝倫의 道를 닦고 義理와 節介를 崇尚하여 우리 人道의 뿌리가 되었다. 本芳春書院은 朝鮮 正祖八年에 海南 儒林의 發議로 溪谷面 芳春里에 創建하여 襄景金公 月潭先生과 忠翼金公 節齋先生과 文忠金公 北渚先生 위 三公의 英靈을 饌享하여 오다. 高宗 5年 戊辰에 依命撤거하였다. 그후 光武 辛丑년에 壇祀로 祭享을 모셔 오다. 檀紀 四二五三年에 海南儒林과 後孫들이 뜻을 모아 옛터에 書院을 重建하여 月潭先生을 主壁으로 節齋, 北渚 三公과 潭陽金公 南隱先生을 配享하여 年代順으로 모시었다. 지난 乙亥 春에 望美堂金公을 追配하여 五賢을 모시고 있다. 위 五賢의 大小 成就와 時代先後의 差異는 있으나 國家에 忠義를 다하였음은 같다 하겠다.

月潭金公 諱는 承澤이니 高麗 忠穆王 丁亥年에 定州牧使 諱惟精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서 天性寬弘하고 能文能詩하시며 通達武藝하시어 文武兼全하시었다. 高麗朝에 興威衛別將에 任命되고 軍器寺少尹을 거쳐 知豐州事로 倭寇격퇴에 큰 공을 세웠다. 朝鮮朝에 東北 面都巡問察理使兼 兵馬節制使 등을 역임하고 太宗 一年 辛巳에 佐命功臣으로 策錄되어 麗山君에 封했고 太宗 五年에 工曹判書를 지내고 知議政府事에 除授되었으며 여러 清官職을 거쳐 兵曹判書로 平陽君에 改封되었으며 中軍 都摠制府事를 歷任 平陽府院君에 進封되었 다. 世宗 五年 癸卯에 議政府 檢校左相에 除授되었고 諡는 襄景이다.

節齋金公 諱는 宗瑞이니 字는 國卿이요, 高麗 公望王 庚午年에 都摠制 諱陞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서 太宗 五年에 文科及第 여러 관직을 거쳐 世宗 十六年 甲寅에 威吉道 都節制使로 六鎭을 開拓하여 女眞의 侵入을 防禦하고 關北地方에 安定을 이룩한 우리 民族史에 길이 빛날 큰 功績을 세웠다. 世宗 二十二年에 刑曹 禮曹判書를 歷任 議政府 右參贊 兼 知春秋館事로서 高麗史를 편찬 刊行하였다. 이어 左贊成을 거쳐 文宗 一年 辛未에 右議政이 되어 文宗의 顧命을 받았으며 左議政이 되어 나이 어린 端宗을 받들었다. 端宗 一年 癸酉에 首陽大君에게 被禍殉節하시었다. 그후 英祖 二十二年 丙寅에 復官爵되었고 英祖 戊寅에 贈諡忠翼이다. 正祖 十年 丙午에 不桃廟를 傳敎받았으며 이어 特蒙忠臣旋閣하다. 南隱金公 諱는 孝友이니 月潭先生의 玄孫이요 參議諱之海의 아드님으로 世宗 十一年 巳

酉에 태어나서 世宗 庚午에 文科及第하여 司憲府 監察을 거쳐 潭陽府使로 治績이 著世하다. 端宗 癸酉難에 從叔 節齋相公 三父子가 被禍殉節함을 듣고 곧 벼슬을 버리고 아우 孝孫 望美堂과 같이 南下하여 海南 淸溪面 黑石山下에 隱遷하여 살면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어 곧은 志操로 洞리를 芳春이라 이름하고 遂及琴歌曰 採西山之翠薇하고 渡東海之明月하며 且誦陶徵士之歸來辭하고 教導後學하며 立廟家後하여 節齋公을 追慕하였다. 望美堂 金公 諱는 孝孫이요 參議諱之海의 次子로 世宗 十三年 辛亥에 태어나서 性本至孝하고 精通經史하여 文宗朝에 成均進士에 合格하였다. 端宗 癸酉難에 從叔 節齋相公 三父子가 被禍殉節하였다는 비보를 듣고 北向痛哭하며 伯氏南隱公과 南下하여 芳春洞에 遷跡하다. 다시 山二面 相公山 北峯 望美山下 九星里에 隱居하면서 平生 거문고와 詩를 벗으로 삼고 지 내시면서 대양 北쪽을 바라보고 節義를 崇慕하며 餘生을 마치지었다.

이 아니면 國家가 保全할 수 없고 義가 아니면 國家가 隆盛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勸忠興義는 國家之大典이다. 위 五賢의 遺績과 功勳은 丹書와 竹帛에 들리고 忠誠과 節義는 錄券과 史策에 빛나구나. 아 五賢의 忠節이여 百世鑑으로 傳하리.

檀紀 四三二九年 丙子 八月中 韓國史編纂委員會 史料委員 尹 在 振 謹識

在日僑胞 金智淵宗親과의 情談

十月 三日 中央宗親會 來訪 전날의 약속대로 十月 三日 中央宗親會를 來訪하신 在日僑胞 金智淵 宗親은 今年에 74세라고 하지만 매우 건강하한 체구에다 심품 또한 활달하여 회담을 갖 넘긴 분으로 보였다.

宗親은 襄景公派 忠貞公의 17代孫으로 京畿 廣州 現城(南市)에서 살다가 渡日後 수십 년만에 찾는 故鄉길이며 中央宗親會 訪問은 년생 처음인지라 감회가 남다른 것이며 더욱 이 夫人과 次男을 帶同하였으니 자못 보람있는 行步일게다. 中央宗親會 任員님들과 같이 한 대흥식당에서의 食事を 兼한 情談은 平生의 追憶으로 길 이 남을 것이다.

還國滯留 日程이 촉박하여 비록 짧은 만남이었으나 뿌리를 같이 한 한핏줄의 宗親이기 에 差別을 아쉬워하며, 그동안의 발간된 宗報와 世蹟 그리고 教養講座의 '카세트' 등을 訪問記念으로 드리고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一行을 歡送하였다. (一無)

中央宗親會를 訪問하신 분

1997年 12月 15日 現在

本 中央宗親會 宗報編輯室을 수시로 찾아오셔서 從事者를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宗親 여러분과 來賓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宗報編輯室>

芳名	住所	電話
金 權 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41-13	032-424-1173
金 孝 南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 18	0341-86-5993-4
金 景 南	안산시 선부동 968-9	0345-494-5100
金 允 喜	도봉구 창3동 505-14(6/3)	997-2207
金 永 日	안산시 월곡동 448 현대A 203-1001	0345-401-5151
金 喆 熙	강남구 도곡동 456-8 조령B/D 2층 조령산업(주)	572-5059
金 溶 運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9 효자촌현대A 113-201	0342-702-2667
金 圭 章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24(33/3)	372-8469
金 廷 軾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10(8/9)	372-6808
金 都 淵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78-77	032-421-0636
金 重 吉	송파구 삼전동 100-12	413-6356
金 漢 哲	송파구 잠실7동 85 아시아선수촌 상가 2층 한국공보사	0342-46-5343
金 智 淵	日本國神床川縣小田原市栢山3161-10	0465-36-0819
金 東 洙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	0661-755-0124-5
金 瑩 成	고양시 마두동 794 강촌마을 우방A 802-203	0344-901-3925
金 文 燮	송파구 가락지구 252블럭 27호	406-2741
金 榮 培	마포구 서교동 475-9	332-0020
金 相 容	서초구 양재동 226(한국트럭터미널내)	571-5588
金 秉 熙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A 30-603	501-0199
金 凡 培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260-5 동아A 3-1205	461-0751
金 學 元	은평구 수색동 355-11	372-6943
김 지 원	日本國神床川縣小田原市栢山3161-10	
金 柄 錫	전남 담양읍 반룡리 159	
김 주 원	전남 담양읍 반룡리 159	
김 응 석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형 후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중 원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두 석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형 삼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형 훈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준 철	전남 담양읍 반룡리	
김 형 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742-4 한솔빌라 301호	
김 정 식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10	
김 한 덕	수원시 장안구 과장동 558-6	43-5071
김 중 수	송파구 잠실7동 101-1 우성A 27-107	415-1081
김 정 록	성동구 성수2동 289-169	464-6349
金 東 俊	전북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42-7739



배우는 삶, 터주는

金佶弘 丹學元師

지난 8월 14일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일은 새벽공기를 가르며 우렁찬 口呼소리가 五聖山기슭 防禦洞을 뒤흔드니 다름아닌 김길홍(金佶弘) 원사(元師)가 丹學의 示範으로 受講生들에게 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임시로 개설된 단학도장의 장면이다. 맨먼저 장심(掌心)에 혈을 모으기 위한 손뼉치기 300번의 시작으로 탁기(濁氣) 털어내기, 도인체조와 태극기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기운 숨쉬기 등으로 50여분만에 示範이 끝날 무렵에는 온몸에 汗이 배이며 活氣가 넘치고 그중에서도 오행(五行) 숨쉬는 묘한 희열을 느끼며 부드럽고도 아름다웠다.

金佶弘 本會 理事는 忠南 扶餘出生으로 翊贊公의 7 十六代孫이며 字가 洪貞이고 이름은 佶弘이며 心山은 그의 雅號인데 丹學界에서는 원사(元師)로 통하며 現在 大田地方檢察廳 天安支廳에 勤務하는 公務員이다. 元師는 남을 지도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분으로서 대개 3, 4년의 수련이 要하나 心山은 불과 8個月만에 元師資格을 부여받았다. 이때부터 수련장소를 溫陽으로 옮긴 그는 溫陽市內의 南山에 올라 이웃들에게 丹學을 傳授한다. 勿論 修練費는 받지않은 無料講習으로 이들과 함께 그 자신도 修練을 게을리 하지 않아 1年 後에는 運氣법과 活氣법을 터득했다. 그는 丹學은 생활을 여유있게 살 수 있는 道法(道法)이라고 잘라 말한다. 온갖 物에서 벗어나 지기를 해방시켜 주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禪道라는 것, 功中무양이나 業累같은 경지에 오르지 않더라도 일단 心身을 차분히 하여 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 일반인에게는 더 이상의 의미가 필요 없을 것이라 한다.

本報 第9號에서 紹介된 바와 같이 그는 丹學말고도 文藝에도 能하여 <한국문학 탐구>(94년), <한국프로문학> 우수상(95년)을 수상하고 동단한 그는 틈틈히 익힌 書畫솜씨도 벌써 수준급이다. 法律新聞 등에 이미 게재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詩 農心을 紹介하며 이 글을 맺는다. (一無)

農心

心山 金佶弘

우리는 농사꾼
 눈뜨면 새벽을 열고
 이슬털며 텃밭에 나아가
 씨뿌릴 때 씨뿌리고
 거름줄 때 거름주고
 김매 때 김매고
 약줄 때 약주고
 물고 틀때 물고 트고
 피살이할 때 피살이 하고
 거둘 때 거두어 들이듯
 우리 인생 또한
 일한만큼 거둔다네
 젊어서 부지런히
 자기텃밭 갈고 일구어
 결실에 후회없는
 農心으로 살어나 보세
 農者로 일하여 보세
 農者 天下之大本이라네

贊助金	金額
9. 20 宗睦會	200,000
10. 4 在日同胞(金智淵)	300,000
10. 25 忠南 大田 宗親會	100,000
8. 20 金鍾植 會長	600,000
9. 20 金鍾植 會長	600,000
10. 20 金鍾植 會長	600,000
11. 20 金鍾植 會長	600,000
12. 20 金鍾植 會長	600,000
11. 6 金相容 理事	100,000
11. 14 金道淵 理事(廣告費)	300,000

贊助金	金額
11. 19 金東五 理事(廣告費)	300,000
11. 20 김한덕 贊助金	100,000
11. 25 金文載 理事(廣告費)	300,000
12. 3 金科元 理事(廣告費)	200,000
12. 5 金大永 理事(廣告費)	300,000
12. 6 김삼근(廣告費)	100,000
12. 16 金哲俊 理事(廣告費)	200,000
12. 17 金光在 理事(廣告費)	200,000
12. 19 金深淵 理事(廣告費)	300,000
合計	6,000,000

지난 9월 24일 中央宗親會에서는 創立 八週年과 宗報 第十五號를 發行하는 自祝宴을 開했다. 中央宗親會의 金鍾植 會長님 을 위시하여 常勤任員님들과 宗睦會(會長, 金權熙) 會員님 들이 同席하여 조촐하고도 뜻 있는 自祝을 하였는데 이 자리 에서는 특히 宗報의 年四回(季刊) 發行에 따르는 앞으로의 計劃 등이 重點 論議되었고 宗親會의 進路와 運營改善策 등 에 對한 격의없는 意見 交換도 있었다. (一無)

自祝宴 光景



中央宗親會 創立八週年 宗報第十五號 發行自祝

任員 年會費 收納 現況表

(1997. 9. 1~1997. 12. 22)

理事 年會費		代議員 年會費	
김경호	30,000	김태길	20,000
김유성	30,000	김현국	20,000
김호남	60,000	김도연	20,000
김동원	30,000	김동만	20,000
김연희	90,000	김학순	20,000
김화영	110,000	김명수	40,000
김선정	30,000	김용희	100,000
김상만	30,000	김동규	40,000
김상목	60,000	김영희	40,000
김기원	30,000	김철원	150,000
김동준	30,000	김봉희	120,000
김상은	30,000	김규석	80,000
김인재	30,000	김팔용	20,000
김용진	30,000	김석희	20,000
김길주	30,000	김광주	20,000
김동영	30,000	김동석	20,000
김희원	30,000	김만재	60,000
김동백	30,000	김영관	20,000
김천수	30,000	김상침	20,000
김영상	30,000	김상균	20,000
김순수	30,000	김동춘	20,000
김종식	50,000	김동성	100,000
김도연	30,000	김진협	20,000
김대연	50,000	김이연	20,000
김중길	30,000	김동찬	20,000
김효남	30,000	김동재	20,000
김병학	30,000	김종엽	20,000
김석윤	30,000	計	1,090,000
김일정	30,000	世帶當 年會費	
김영일	30,000	김광원	50,000
김대석	90,000	김중수	30,000
計	1,330,000	김동호	10,000
		김정순外 633人×5,000	3,165,000
		計	3,255,000

任員 年會費 收納 案内

中央宗親會는 任員 여러분이 納付하시는 年會費와 世帶當 年會費 그리고 篤志宗親의 贊助金으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每期마다 거르지 않고 正성껏 會費를 納付하신 會員님과 篤志宗親의 贊助金에 하여 뜨거운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 第9期(97. 4. 1~98. 3. 1)에 納付하셔야 할 任員 年會費는 第8期 定期總會에서 다음과 같이 策定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參考로 하시기 바랍니다.

= 會費 納付額 =

會長	年	100萬원	以上
副會長	年	30萬원	以上
顧問·名譽會長	年	3萬원	以上
監事·幹事·理事	年	3萬원	
代議員	年	2萬원	
世帶當 年會費	年	5千원	

□ 온라인 구좌 □

- 농 협 069-02-01-212885 (김종식)
- 한일은행 146-003175-02-501 (김종식)
- 우 체 국 012351-1478813 (김종식)
- 지로번호 7637405

※ 위의 온라인구좌 또는 지로로 납부하신 후 그 내용을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幹事長)

中央宗親會 門中元老와 任員招請 送年の 밤 行事

中央宗親會가 多事多難했던 丁丑年을 보내고 希望의 戊寅새해를 맞이하는 時點에서 宗親會의 任員님들과 門中의 元老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해를 大過없이 보내게 된 것을 感謝하며 보다는은 새해를 設計하는데 도움이 될 高見을 듣고자 마련한 「送年の 밤」 行事는 12月 16日 下午 6時 동작구 사당동의 태농식당에서 百餘名이 參席하여 大宴會場을 가득 채우는 大盛況을 이루었다.

金鍾植 中央宗親會長은 人事말에서 오늘 이자리는 宗親會 發展과 밝은 未來로의 기단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임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親睦을 敦篤히 하고 一致團結하여 새해에도 보다는은 宗親會가 되도록 더욱 努力하자고 당부하였다. 宴會場은 始終一貫 和氣霽靄한 雰圍氣로 밤늦도록 이어졌다. (一無)

※ 原稿 寄稿 要望 ※

- 順天金氏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宗親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1. 祖上님에 대한 行績과 思想 및 考證資料에 관한 건
 2. 各宗派 및 宗會의 現況 및 活動 現況
 3. 宗員의 敎養을 위한 內容
 4. 모든 宗員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5. 孝行, 善行等 우리 문중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6. 그밖의 詩·隨筆·紀行文
- 위와 같은 內容의 投稿를 보내주시면 宗報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겠습니다.

襄景公墓記

11월 2日(음) 10月初 3日은 襄景公의 墓記日로서 廣州郡 退村面 元塘里 墓前에서 嚴修되었는데 前日부터 全國에서 後孫들이 모이고 特大邱에서는 嶺南宗親會會長 金應淳 會員들이 大型 觀光버스로 八十餘名이 團體로 參禮하는 등 大盛況을 이루었다.

午前 11時에 春熙 堂(唱) 芻로 시작된 祭禮는 初獻官에 漢哲, 亞獻官에 大淵, 終獻官에 應淳, 祝官에는 春熙가 分定되어 禮制에 따라 墓記를 마치고 飲福하는 자리에서는 齋舍가 지은지 어언간(於焉間) 四十餘年이 되어 大대의 人修理 또는 改築이 不可避함으로 그 對策이 時急하다는 提案이 있었으나 結論을 맺지 못하고 다음 機會로 미루었으며 齋室과 位士管理 등 廣範圍한 討論이 있었다. 祭禮費用 問題도 論題로 올랐으나 卽席에서 百九十餘萬원의 誠金(香料)이 모였으니 感謝를 드리면서 그 內容을 다음과 같이 알리는 바입니다. (一無)

華 燭

安山市의 金昌柱 宗親의 長男 鑄烈君이 1997年 10月 5日 음력 9月 4日 日曜日 午後 1時 오성 에식장에서 金성진氏의 長女 영애嬢과 華燭을 밝혔다. (一無)

訃 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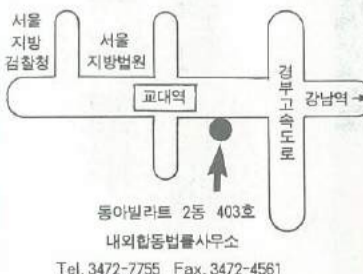
城南市에 居住하는 金陽載 宗親의 父親 金炳璣公께서 지난 八月八日 十二時에 老患으로 九十二歲를 一期로 自宅에서 別世하여 九日 郡梁里 무우정말 先塋下에 安葬하였는데 遺族으로는 陽載를 비롯하여 興載, 聖載, 南載와 二女가 있다. 삼가 冥福을 비는 바이다. (一無)

恩平區 녹번동 117번지의 金基雄 宗親은 1997年 11月 6日 市内 세브란스病院에서 別世하여 11月 8日 城南市 益唐의 天主教公園墓地에 安葬하였는데 遺族은 一男二女가 있다.

※ 襄景公墓記 香料 ※

金載俊	300,000	서울시	강남구
金虎遠 (16代)	300,000	대구시	대구시
金喆熙	200,000	서울시	강남구
中央宗親會	100,000	서울시	대구시
嶺南宗親會	200,000	안양시	안양시
安養宗親會	100,000	인천시	인천시
宗睦會	100,000	경북	상주
尚州宗親會(虎南)	50,000	안산시	안산시
金永日	100,000	인천시	인천시
金都淵	50,000	서울시	서울시
金深淵	50,000	서울시	서울시
金行燦	50,000	서울시	서울시
김정복	30,000	서울시	성수동
金商吉	30,000	성남시	성남시
金商尹	20,000	서울시	서울시
金德南	50,000	서울시	송파구
金仁甲	20,000	서울시	서울시
金永洙	20,000	서울시	마포구
金文燮	20,000	서울시	서대문구
金明熙	50,000	서울시	서울시
金允喜	30,000	서울시	서울시
金榮培	20,000	서울시	서울시
金圭章	20,000	서울시	서울시
計	1,910,000		

= 内外合同法律事務所 位置圖 =



金亨民 法律顧問 紹介
金法律顧問은 辯護士로서 中央宗親會 理事와 순금회 總務會務委員이시고 節齋公의 十代孫이시디.

一般 民·刑事 사건은 물론이고 不動産 사건, 손해배상 사건, 家事와 行政사건 등에 두루 精通하시고 모든 受任事件을 誠實하게 處理하는 분으로 定評이 나있음으로 우리 宗親들의 相談에도 親切히 對해 주실 것입니다. (編輯室)

一九九七年 十二月 二十四日字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法律顧問에 任함
金亨民

人事

金碩載 宗親의 慈親 全州李正浩 女史께서는 十一月七日 宿患으로 別世하여 九日 郡梁里 山 43번지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遺族으로는 長子 碩載을 비롯하여 德載와 二女가 있다. (一無)

宗會의 활성화를 위한 몇마디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中央宗親會가 創立되어 왔수를 거듭하면서 그동안 이門中의 주춧돌인 中央宗親會의 자리를 연면히 지켜온 많은 宗親先覺者들의 勞苦를 致賀해 마지않는 바이다.

그분들이야말로 基礎를 놓고 그것을 다져가는데 남다른 熱意와 能力을 發揮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宗親會라는 하나의 조직을 運營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熱意가 얼마나 값진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순수한 熱意와 무조건적인 犧牲의 바탕위에 의지할 수만은 없다고 보아 몇가지 그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일하게 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씨족사회에 대한 긍지를 남달리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층의 세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만이라도 명맥을 유지하여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종친회라는 씨족적 보수적 특성을 감안하면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가 갈수록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열의를 가진 세대는 점점 줄어들 것임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이든 한 조직이 정체되어 있다면

수 있는 실속있는 대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여 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종인간에 심리적인 강한 연대감을 확립하게 할 수 있는 교류 확대 방안이 중요한 몫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종인간에 상호 동질성을 확인하는 기쁨이 되고 상호 협력과 격려를 느끼면서 서로 서로의 성취를 확인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며 어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결코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을 느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줄 중요한 바탕인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이와 같은 유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다. 우리는 단순한 자부심이나 타내는 배타적인 폐쇄의 이기성과 그 충동을 자주 보아온 터이다. 따라서 우리의 연대의식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국가적 공의에 벗어나지 않으며 더욱이 진리 지향성을 갖는 덕목들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같은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의 청송의 대상이었던 우리 선조들의業績을 선양하는 일을 차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일은 무슨 기념물을 세우고 행사를 벌이는 일과는 달리 선조들의 정신적 유산을 폭넓게 재음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금번 국가에서 행사한 護國人物 현양 기념회가 97年 11月 14日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中央宗親會 金鍾植會長을 비롯한 수많은 宗親을 모시고 이달의 護國人物로 선정된 節齋公(金宗瑞)의 朝鮮初期北方의 六鎭을 開拓하여 領土를 擴張시킨 武將으로서 안으로는 高麗史를 編纂하는 등 뛰어난 학자요, 유능한 行政家로서 李氏朝鮮史에 제일의 聖君이신 世宗大王을 훌륭하게 보필한 공적을 顯揚하고 그분의 精神과 業績을 기리는 追慕行事를 성대히 가진 바 있다.

丁丑年을 보내면서 宗親會의 未來와 門中의 發展을 생각하며

우리 宗親會가 앞으로 해야 할 事業의 종류와 내용을 細目까지 정리하고 진행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하여 종원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宗親會를 구성하여 종원들을 회합에 모으고 구성요인들을 갖추는데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이다 보니 宗親會의 未來에 대한 지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지표를 향해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실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 결과 宗親會의 소집 횟수가 거듭되면서 때면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하게 되고 참석자의 증감도 없이 회의내용의 변화도 없이 宗親會 자체가 안

그 조직 구성의 명분을 잠재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일깨워야 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하여 본 것이 종친회의 활성화이다. 여기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꼭 의면적이고 가식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가식적이고 의면적인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 外華에 비하여 내실이 적은 경우가 많다.

물론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조직 구성요인들이 모두 탄력성 있게 움직일 때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확인될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활성화 이 표면화되기 이전의 과정에 주의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분하게 내실을 기할

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연대감이 강화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고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맺어 강화할 것인가.

우리 종원들은 어느 씨족들보다도 문중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강하여 연대의식도 두터운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듯 순수한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열의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강한 힘인 것이 틀림없지만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며 그 모두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순수하고 강한 자부심은 맹목적인 배타성을 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 기울여야 한

다. 우리는 단순한 자부심이나 타내는 배타적인 폐쇄의 이기성과 그 충동을 자주 보아온 터이다. 따라서 우리의 연대의식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국가적 공의에 벗어나지 않으며 더욱이 진리 지향성을 갖는 덕목들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소리에 거칠 것이 없이라. 이 詩句야말로 그분의 호쾌한 장부의 기질을 잘 표현한 詩句일 것이다. 또한 襄景公 할아버지는 대종 때 擧擧를 당할 때 관으로 祈雨祭를 지내면 그때마다 卽應大雨하므로 특히 太宗大王으로부터 承憲라는 賜名을 받으셨으며 박포의 난 때 太宗의 위기를 모면케한 功勞로 佐名功臣 麗山君으로 봉작을 받으셨으며 太祖, 定宗, 太宗, 世宗 4대에 걸쳐 40여년간 國家 초창기에 방위와 발전에 봉사하신 원로공신으로 돌아가실 때 世宗께서 敎書로서 襄景이라는 諡號를 내리신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료들을 내용과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현대어로 재구성 재해석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잊대들의 견고한 자부심과 긍지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며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그들도 역시 같은 자부심과 긍지속에 결속되게 하는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公지가 眞理指向의 合目的性을 바탕으로 하게 하는 편리하면서도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며 다시 확인하거나 떠들썩한 의형상의 번잡스러움도 없이 조용하고 알차게 종원간의 유대를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일은 후세들을 적극적으로 薰陶하는 일이기도 하다. 후세들은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연원을 되돌아봄으로써 효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선대의 사랑을 본받아 새로

운 사랑을 보태려는 포부를 품게도 될 것이다. 자부심은 여러 가지 보이는 일들을 쉬운 듯이 추진 처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점이 보이지 않는 주변에서 활성을 자극하여 결국 화려한 문중의 개화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宗親會의 活性化 方案으로는 선영을 定期的으로 參拜하는 길이다. 始祖墓를 비롯하여 襄景公墓, 節齋公墓 또 芳春書院을 비롯한 各處에 산재하여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일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現場을 우리는 보다 더 많은 기회에 찾아보고 그때의 상황을 再照明하여 보기 위하여는 計劃的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宗親會 會誌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宗親會 운영에 골간이 되는 宗憲을 整理制定하여 모든 事業의 방향과 進路에 확고한 指針이 되게 하여 능률을 보장하여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宗親會費에 대하여 現在 시행하고 있는 會費의 金額이 1989년도에 策定되어 現在까지도 시행하였던 바 그동안 物價 上昇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과 앞으로 計劃하고 있는 宗親會事業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現實性 있는 金額策定이 바람직하기에 世帶當 年會費는 一萬원, 代議員 三萬원, 理事·幹事·監事·顧問·名譽會長 五萬원, 副會長 三十萬원 이상, 會長 百萬원 이상의 年會費로 보강하여 現實性 있는 會費 납부로 宗親會 운영의 활성을 極大化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現在 任員을 대폭 개편하여 참신한 인재로 보강키 위하여는 각 지역 宗親會別로 적임자를 推薦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宗親會 發展과 運營에 참

신한 役重으로서의 역할담당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주장한 그 어떠한 일도 중요치 않은 일은 없다. 하지만 제일의 우선순위로 내세워 우리 후손들이 결집되어 꼭 맡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節齋公의 공적평가를 현실화시켜 그분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일을 성취시켜야 비로서 몇몇한 손김의 자손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중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節齋公의 공적은 인정받을 정도로 남음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충무공이순신 장군에 대한 공적현양이 국민 모두의 추앙을 받는 절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문중의 중시조이신 節齋公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인식이 극히 미흡하여져 있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나마 좌시만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우리 후손들이 선봉이 되어 분연히 힘을 모아 역사속에 묻혀있는 그분의 고귀한 정신과 국가안위를 위하여 평생을 몸바쳐 헌신한 공적을 높이 현양하고 충무공에 버금가는 추앙을 은국민으로부터 받도록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고종자료를 갖추고 역사학자 및 각계 요인에 협조를 받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모든 종원이 하나의 정신 하나의 공지에 결속되게 하여 진정한 힘과 탄력을 도출해내는 방안이 침착하게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보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본 것이다.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中央宗親會會員 家口當 1部씩을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室長 金浩淵

發行所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7-47
電話: 02-587-0529
FAX: 02-581-0529
印刷所: 文苑文化社

節齋公 護國人物로 顯揚行事 戰爭紀念館에서

十一月十四日 追慕式 舉行

늦가을 비가 촉촉히 내리는 14日 10時半 一般인과 團體學生 등 千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追慕式은 開會辭에 이은 功績報告가 있던 다음 우 리 中央宗親會 金鍾植 會長의 獻花와 節齋公派宗親會 金學元 會長의 獻花가 있던 다음 李在田 戰爭紀念事業會 會長의 追慕辭을 지참한 來賓紹介 順으로 進行되었는데 中央宗親會에서는 會長님들 비롯하여 常勤任員들과 서울에 居住하는 宗親님들이 많이 參禮하였고 特히 潭陽의 後孫들은 團體로 參席하여 大盛況을 이루었다. 追慕式이 끝난 다음 2部行 事로 이어져서 成年國軍의 莫 強한 偉容을 表出하고 추모행 사에 參席한 分들을 歡迎하기 위하여 國防部 軍樂隊의 演奏 와 吹打隊의 行進과 三軍儀仗 隊의 示範이 있어 이를 觀望한 후 紀念館內 기획 전시실에서 열린 茶菓會에 參席한 후 담양 종친 一行은 中央宗親會會長의 特別招請으로 태동식당에서 환 영연회를 열어서 中央과 地方 의 유대강화와 親睦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一無)



追慕辭

收穫의 계절 十一月을 맞아 追慕事業會가 朝鮮初期 北方의 六鎭을 개척하여 豆滿江을 國境線으로 확정하는데 큰 功을 세운 金宗瑞 장군을, 이달의 護國人物로 선정하여, 오늘 來賓 여러분을 모시고 追慕式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民族이나 國家의 歷史發展은 外部로부터의 挑戰에 대처하는 應戰의 樣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民族史를 살펴볼 때 收獲의 계절 十一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시아 大陸 南端의 작은 半島國家라는 地政學的 條件으로 世界史에서도 類例가 드물게 峻한 外勢의 침략을 받았습시다만, 半萬년에 걸 쳐 나라를 지키고 찬란한 民族文化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外部로부터의 挑戰을 극복할 수 있는 應戰力을 創造하고 結束하기 위하여 一身의 榮利는 물론 高貴한 목숨까지도 바친 護國先烈들이 계셨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先烈들의 愛國精神과

救國忠情은 民族正氣로 승화시켜 길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遺産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護國先烈을 顯揚하는 事業에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에 저의 事業會에서는 國家와 民族이 危機에 처했을 때 爲國獻身한 先烈들의 生涯와 思想과 業績을 再照明하여, 그 분들을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하여 95년부터 매월 '이달의 護國人物'을 선정하여 追慕行事를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功績報告에서 밝혔습니다만 金宗瑞 장군은 '大虎' 즉 '큰 호랑이'라는 別名을 들을 정도로 武人的 氣像에 學問과 智略을 갖추어 밖으로는 國防을 튼튼히 하고 北方의 領土를 확장시킨 武將으로서, 안으로는 '高麗史'를 편찬하는 등 뛰어난 學者요 유능한 行政家로서 世宗大王을 훌륭하게 보필함으로써 太平聖代를 이루하고 民族文化를 꽃피우는데 절대적 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分斷時代를 극복하고 民族의 平和와 繁榮을 구현해야 할 우리 世代가 北方을 개척한 金宗瑞 장군의 精神과 業績을 기리는 追慕行事를 거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 意義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宗瑞 장군의 追慕式을 더욱 뜻깊게 해주신 來賓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事業會가 주관하는 護國人物 顯揚事業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一九九七年 十一月 十四日 戰爭紀念事業會 會長 李在田

신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한 화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나는 세상이 곧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진 신나는 세상, 한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http://www.hanhwa.co.kr> 더욱 상세한 그룹소개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화 그 룹
會長 金 昇 淵

崇光製材所

會長 金漢杰
代表理事 金正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0-7
電話 : (032) 82-1793, 866-3074

第一皮革

社長 金相基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1번지
전화 : (062) 223-3517
핸드폰 : 011-608-8262
호출 : 012-618-6200

- 第一皮革 社長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 19代孫

(주)근하공영
(주)흥인운수

대표 김삼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07-121
전화 : (02) 972-2331

신성종합상사

양곡도매

대표 김상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20-1
전화 : (02) 337-0155

광일공업(주)

대표 김광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34-3
전화 : (0331) 34-3171~2
FAX : (0331) 35-4518

김종식세무사사무소

대표 김종식

서울·영등포구 문래동2가 60-2
전화 : (02) 634-9118
FAX : (02) 782-4639

대성상사

(427호)

社長 金深淵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7
職場 : 744-4890, 766-3648
自宅 : 766-5233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派牧使公 14代孫

世一合同法律事務所

代表 辯護士 金采庸



職場 :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貿易會館 4層 403號)
☎ 551-0305
自宅 : 서울시 鍾路區 平倉洞 468-6
☎ 352-7949

- 中央宗親會 名譽會長
- 襄景公派 御使公 16代孫